

한전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 본격화

3월 14일까지 설계안 공모...나주 혁신산단 부지에 800억 투입 2020년 완공

한국전력공사가 조성을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Energy Valley)에 유치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이 본격화됐다.

한전은 오는 3월 14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한전 산하 전력연구원(KEPRI)이 주도하는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는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 나주 혁신산업단지 부지 9만8781㎡에 1만 5660㎡ 규모로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완공 이후에는 한전이 다양한 지역협력 연구개발(R&D) 과제 발굴을 위해 나주 본사에 지난 2015년 6월 개소한 에너지밸리 연구센터도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총 802억원이 투입되는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는 에너지밸리 투자기업과 지역의 연구기관 등 협력 R&D를 추진하고, 개발제품의 성능과 신기술 실증시험 지원,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한다.

본관(7500㎡)을 비롯해 태양광·태양열, 수소에너지 기술 등 에너지밸리 특화기술 연구기반을 마련할 ‘특화기술시험동’

(5000㎡), 전력증전기업체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동시험동(3100㎡) 등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동시험동에는 전력변환장치 실증·인증시험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

아외에는 신산업 실증시험장이 들어서며 마이크로 그리드(Micro Grid·독립 분산형 전원)와 분산전원, 수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실험기반을 갖추게 된다.

현재 센터에 상주하게 될 연구 인력 규모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한전이 2년 전 밝혔

던 예상 인원은 최대 200여명 수준이었다.

대전의 전력연구원에 이어 나주에 분원 성격의 신기술 실증센터가 들어서면 광주·전남과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학 등에 첨단화된 에너지 실증 시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센터가 완공되면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제품개발을 위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밸리 내 산학연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3월부터 ‘개파라치’ 시행

공공장소 반려견 목줄 2m

사람 공격뎀 주인 형사처벌

3월부터 반려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줄을 아예 목 가까이 잡는 등의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이 통과되면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 발생이나 맹견 유기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남북은 1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한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11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11개항의 공동보도문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 전 북측 금강산 지역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북측 마식령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을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마식령스키장 전경.

/연합뉴스

남쪽 선발대 다음주 北 마식령스키장 방문

남북 상호왕래 본격화

공동훈련·금강산 문화행사 준비

25일부터 北 선발대 남한으로

북한 방문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논의에 집중했던 남북이 대략적인 합의를 마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상호 왕래를 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북측에서 치러지는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과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 준비를 위해 남측의 선발대가 동행한 육로로 금강산과 원산 지역을 방문한다.

금강산 온정리에 있는 공연시설인 ‘금강산문화회관’은 관광이 끊기면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시설 점검이 필요하고 마식령스키장은 북한TV에 많이 등장하는 했지만, 남측에는 생소한 시설이다.

특히 마식령스키장이 있는 원산으로 이동하는 데 항공편을 사용하기 위해 갈마 비행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 비행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된다.

현재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실무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리 사전 선발대가 현장시설을 점검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행사가 가능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은 조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또 25일부터는 북한의 선발대가 남측을

찾아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차단 등이 사용할 시설을 점검한다. 선발대는 북한 방문단과 동일한 동선인 경의선 육로로 남측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장과 숙소, 훈련장, 공연장 등을 돌아보게 된다.

여기에서 지난 15일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도 남측을 찾는다. 이 점검단은 서울과 강릉의 공연시설을 직접 찾아 살펴보고 예술단이 북측 숙소 등도 돌아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발대와 점검단의 방문이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 간의 행사에 들어가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민족의 축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승춘보·죽산보 개방에 생태계 살아난다

유속 빨라져 모래톱 재생생...동식물 개체수 늘어

영산강 승춘보·죽산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 생태계가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환경연합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영산강 일대에서 하천 건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승춘보·죽산보가 개방된 지난해 11월 13일 이후 강 생태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연합은 정제대 있던 강의 흐름(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을 비롯해 지석강·영산천·봉황천·만봉천·문평천·서창천·황룡강 일원(강 분류와 지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 사라진 모래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철새와 동물의 서식·먹이활동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 결과를 보면, 보 개방 전후 영산강에서 관찰된 철새·오리 등 조류의 종류·개체수가 늘었다.

지난 2016년 12월 영산강 상류(승춘보 상류~담양호 하류)에서 관찰된 종수는 35종, 개체수는 3106개체였다.

보 개방 이후인 2017년 12월에는 43종, 8628개체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산강 중류(봉탄대교~승춘보)에서 관찰된 조류 개체수도 1489개에서 2884개로

늘었다.

최근에는 무리를 지은 노랑부리저어새와 흰목물떼새(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조류), 오리·중대백로·왜가리·월암·논병아리 등이 영산강 모래톱 등지에서 자주 목격됐다.

지난달 19일에는 영산강 극락교 주변에서 멸종 위기 동물인 수달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이달 15일에는 죽산보 위쪽인 나주천 일대에서 수달 무리가 발견됐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11월29일 조사 보고서에서 “영산강과 합류되는 지점(황룡강·평동천·광주천)의 흐름이 다소 빨라져 강물 속 모래·자갈 등이 굴러 자연정화되는 과정에 있고, 고라니와 멸종위기 2급 생물인 쇠의 발자국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당시 강 분류 바닷물을 굴착하면서 물 낙차가 발생해 영산강 일부 구간에서 침전물이 다시 발견됐고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말조개·갈조개·왕우렁이 등 폐사체가 많은 실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13일 영산강 죽산보 수문을 개방, 하한수위 1.5m(기존 3.5m)를 유지하고 있다. 승춘보는 수문 4개 중 1개를 열어 기존 7.5m 수위에서 4.5m까지 내렸다가 6m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병사 봉급 이달부터 인상...희망적금 한도 확대 추진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른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월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일병, 이병의 봉급은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2017년 기준 병사 봉급을 지급했다. 오는 19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면 이달부터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을 적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2017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수행한 군인복지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역병이 병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약 25만 9000원 수준”이라며 “금년 봉급 인상에 따라 현역병이 복무 중 약간의 여유자금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현역병이 여유자금을 저축해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 희망적금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는 국방부와 시중은행 2곳의 협약에 따라 은행별로 월 10만원씩 적립할 수 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불분 대출

(주)오천정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강원 0622, 법원지정대부, 연 27.9%(월 2.3%) 이자, 추가비용 없음, 초기상환조건 없음, 대출금 1억 이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지소명칭: 광주광역시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원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장흥 수문해수욕장 팬션 등 적합 770㎡ 평당 70만원
•순창군 인계면 감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장성 북이면 백양봉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는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방죽을 13층 2억5천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충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무안 현령 평산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5만원
•신안군 입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각구적합 5억
상가건물
•고흥군 동일면 팬션 땅 7061㎡ 팬션 267㎡ 8억2천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선 13억2천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경관죽을 4억6천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주월동 무등시점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금 매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는 1억
•장성 백암지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죽을 2억6천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건평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는 7억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장덕동 3층 원룸 대291㎡,건1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장덕동 3층 원룸 대262㎡,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산정동 4층 원룸 대455㎡,건1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담양군 대전면 상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담 2,240㎡ 매 4억6천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